신경숙 소설의 부재성

안 남 연*

1. 서론
2. 본론
 1) 현실 삶의 고통과 승화
 2) 부성의 이미지
 3) 불임의 사랑
 4) 『외딴방』의 부재론
3. 결론

초록

199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은 대개 대중에게로 다가섬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것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는 점, 또 노골적인 자기노출의 일반화를 특징으로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문학은 물질적 풍요에 반비례하여 나타난 정신의 빈곤과, 이렇다할 사회적 이슈와 고수할 만한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한 세대들의 비사회적 특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사회적 특성은 곧 개인들의 내면으로의 침잠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결과는 여러 세기말적 특성을 배태시키는데, 이런 문단의 성향을 대표하면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는 이가 바로 신경숙이다. 앞의 두 가지를 대표하면서도, 뒤의 자기노출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풍금이 있던 자리」, 「베드민턴 치는 여자」, 「깊은 슬픔」, 「외딴방」에서 발견되는 조심스럽고 수줍게 드러난 내면을, 결핍과 부재성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신경숙 소설 속에 드러난 부재성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불임의 사랑, 물질과 정신의 빈곤, 외로움과 절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현실 속에서 갖는, 신경숙 특유의 몸짓과 자세를 작품 속에서 살펴보았다.

* 경기대 교수

1. 서론

이전의 문학과 구별되는 1990년대 문학의 특징으로, 순수문학의 대중에로의 다가섬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점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는 점, 또 노골적인 자기노출이 일반화된 점을 들 수 있겠다. 1990년대 문학은 물질적 풍요에 반비례하여 나타난 정신의 빈곤과 이렇다 할 사회적 이슈와 고수할 만한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한 세대들의 비사회적 특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사회적 특성은 곧 개인들의 내면으로의 침잠으로 이어지고, 그것의 결과는 여러 세기말적 특성을 배태시키는데, 이런 문단의 성향과 크고 작게 같고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이가 바로 신경숙이다. 앞의 두 가지를 대표하면서도, 뒤의 자기노출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그가 갖는 문학적 매력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신경숙 소설 속에서 발견되는 조심스럽고 수줍게 드러난 내면을, 결핍과 부재성의 측면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현실 삶의 고통과 승화

신경숙의 소설들은 떠남, 추억 등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회상형이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까운 슬픔을 내포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수용함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경숙식 비상구를 찾게 된다. "신경숙 소설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 밑바닥에 깊숙이 잠재해 있는 추억의 정서 속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향한 작가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 감춰져 있다. 신경숙의 모든 소설들을 관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이 더욱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고통의 미학적 승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듯한 고통스러운 삶과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 신경숙의 진정한 문학적 성과가 놓여있다고 해도 좋을 것"[1]이다.

> 그 시절의 아버지와 그 여자는 손을, 둘이서 있을 땐 늘 손을 잡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것이 손크림을 발라주는 한 컷으로 합쳐져서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손잡는 일이 뭐 대수겠습니까만, 저는 지금도 아버지 손을 꼭 잡아보지 못한 걸요. 당신의 손. 저는 당신의 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운전하는 당신의 손등에 제 손을 갖다대며, 당신 손이 참 좋아요,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당신 손엔 늘 결혼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쓰라림이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 반지는 그저 당신의 일부분처럼 거기 끼어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마음에 휘몰아칠 때마다 당신의 손을 찾아 쥐었습니다. 그러면 서러운 마음이 가라앉곤 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반지 말고 다른 것을 받았다고, 설령 그 받은 것 때문에 제가 그 속에 갇혀 죽는다고 해도…… 제겐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저를 달래고는 했…… 사랑하는 당신[2]

위의 인용문은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일부이다.

아버지의 새로운 젊은 여자, 그녀는 투박한 시골 아낙인 나의 어머니와는 아주 다른 도회적 여성이다. 그녀가 내 집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집 분위기는 밝아진다. 화사한 봄빛과 여성적 내음으로 아버지의 새 여자는 싱싱한 가정을 일궈낸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의 반발로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를 남겨 둔 채 집을 떠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나는 꼭 예전의 그 여자와 같이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 남자는

1) 박혜경, 「추억, 그 바스러지는 무늬의 삶－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박혜경 비평집』(1997), p.38.

2)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1993), p.38.

나와의 결합을 위하여 고국을 떠나자며 비행기 표를 건넨다. 그러나 나는 다시 그 여자와의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린다.

> 그 여자가 떠나던 날, 그 여자에게 칫솔을 건네주던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 여자가 떠나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3]

이렇듯 나는 과거 아버지의 여자와 지금의 내 처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의 가정의 안녕을 위하여 나의 사랑과 결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다만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는, "사랑은 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결핍의 운명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라는 짐작만이 가능하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언제나 실현될 수 없는 결핍과 부재의 방향을 욕망한다. 어쩌면 서로 같은 것을 욕망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소통되지는 못하는 관계가 거기에 있다. 그곳에는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론적인 비극성이 내재되어 있다."[4] 인간의 삶에서 사랑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풍금이 있던 자리」의 사랑은 사회적 제약을 받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외톨박이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녀는 사랑의 본질을 순수하게 승화시키고 있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당신'에 대한 결별에의 의지가, '상처와 상실'로 읽혀지기 보다 진정한 타자와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그래서 '나'의 역사 · 실존적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으로 읽혀

3) 같은 책, p.39.
4) 이광호, 「그녀를 들여다보는 그녀」, 『환멸의 신화』(민음사, 1995), p.174.

질 때, 비로소 신경숙 문학의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5]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는 자칫 유부남과의 불륜을 다루어 치졸해 질 수 있는 내용을, 그녀 특유의 시적 문체와 담백한 문장으로 사랑의 순수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잘 그려내었다. 거기에 현실적인 슬픔과 고통을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2) 소설 속의 부성의 이미지

「풍금이 있던 자리」의 아버지는 불륜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어떠한 부정적 이미지와 행위는 작품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은근한 속정을 가진 연민의 가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 방금 다녀온 아버지와의 새 사냥은 사냥이라 하기가 민망하군요. 그냥 새잡이라고 해두지요……아버진 털이 보숭보숭하고 각이 진 밤색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갈색 가디건에 검정 목티를 받쳐입고 계셨는데 헐렁한 상아색 골덴바지에 벨트를 꽉 조인 차림이셨는데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계셨는데 맑게 쏟아지는 봄볕을 뚫고 가시는 그 모습이 꼭 사냥꾼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헛간 벽에 걸어둔 엽총을 꺼내 어깨에 메셨을 때 그 엽총은 완벽한 소품이 되더군요. 분장을 마친 아버진 대문을 나가셨습니다. 그 때 저도 방문을 열었지요. 처음엔 그저 어리광쟁이 어린애처럼 앞서가시는 아버지 장화 발짝에 제 발짝을 갖다대며 뒤따랐습니다. 한쪽으로 우리 부녀의 그림자가 나란히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 아버진 꽤 늠름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상아빛 골덴바지가 아버지 몸에 달라붙는 거였지요. 저는 뒤따르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지 안에 아버지 몸이 과연 있는 걸까? 믿어지지 않게 바람만 쿨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척이 끊기자 아버진 뒤돌아 보셨습니

5) 양선규, 「사실 혹은 사족의 미학」, 『한국현대소설의 무의식』(국학자료원, 1998), p.363.

다. 털모자를 쓴 아버진 제가 당신 가까이 다시 다가설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작아지시다니. 털모자 밑으로 보이는 뒷목덜미까지 흰 머리가 수북했습니다. 귀밑으론 탄력을 잃은 살이 처져 겹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까지 무수히 핀 검버섯이라니. 저 깊은 곳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당신을 향해 지르는 것도 같았고. 어쩌면 삶을 향해 내질렀는지 모르지요. 연민에 휩싸여 아버지 골덴바지 뒷주머니에 제 두 손을 포옥 집어넣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긴 셈이라 아버진 순간 몸의 중심을 잃으시고서 뒤에 서있던 제게 쏟아지셨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앙상한 아버지의 엉치뼈[6]

노년의 아버지에 대한 딸로서의 애틋한 정감이 진득하게 묻어나고 있다. 주인공 나는 부성으로부터 상처 입은 여성 중 하나이다. 즉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인 남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면 나는 간접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그러한 한 남성으로서의 아버지와 그의 여자까지도 아름답게 수용하고자 한다. 나는 도덕의 잣대를 아버지에게 들이대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그러한 행위와 그의 여자를 미화시키고 있다.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슬픈 현실조차 환상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아픈 상처를 비껴 가는, '신경숙식 싫은 현실 벗어나기'가 부드럽고 아련하게 다가온다. 오히려 그러한 과거를 가진 아버지의 노년이기에 오히려 더욱 서글프고, 그의 화려한 젊음에 반비례하는 초라하고 약해진 세월 앞에 '나'는 가슴이 아파지는 것이다.

"그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절망과 상처를 체험하고 타자로부터 밀폐된 공간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그 속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그 삶의 존재론적 심연을 들여다보는 고독한 응시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신경숙 소설의 인물들에게 있어 화자들과의 관계 맺음이란 삶의 막막함과 허망함을 일깨우는 끊임없는 상처와 상실의 체험만을 의미할 뿐이다. (…중략…) 그

6) 같은 책, p.36.

녀의 작품의 여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가족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사적인 소집단 밖의 낯선 타자들의 세계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체험은 그녀들에게 해소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부여한다. 그러나 신경숙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타자들과의 세계에서 겪는 그 상실감은 계속해서 사회적 상실감의 영역으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의 상실감으로 이동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녀의 작품에서 사회적 타자성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실 의식의 밑바탕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본질적인 불완전함, 혹은 이 낯선 타인들의 세계에서 인간이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실존적 불안과 결핍에 대한 작가의 깊은 내면적 성찰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7]

박혜경은 작품에 내재된 작가 신경숙의 특징과, '신경숙 소설의 상실의 논리'를 대단히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아드리엔느 리치는 여성의 진정한 가족 로망스는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부권적 질서를 강요하는 강압적 이성애성에서 벗어나 가족 바깥의 새로운 관계 공간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려는 노력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8]는 주장과 같이 작가 신경숙에게도 이 논리는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신경숙의 여러 작품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특히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강조되는 남성적 권위의식과 가부장적 제도는 신경숙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녀의 부성 이미지는 그녀 소설의 기조라고 할만큼 심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풍금이 있던 자리」의 '내'가 아버지의 '그 여자'같이 되고 싶은 것은, 그녀가 아버지 유일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또 내가 나의 애인인 유부남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일상의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 사랑을 잃게 되는 아내 역할, 즉 과거 투박하기만 했던 그녀 어머니의 불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모순된 심리

7) 박혜경, 「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5호 (1995년 여름), p.355.

8)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v., 1989).

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신경숙의 부성 이미지는 온화하고 따뜻하지만은 않다. 항상 주권의식을 강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강한 권리가 있고, 매사에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지는 강성의 이미지다. 특히 그는 어머니나 새 여자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던 가해자의 입장이다. 반면 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인 어머니, 새 여자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과 선택을 기다리는 수혜자의 입장인 약자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고 있진 않는다. 즉 작가 신경숙은 이러한 피해자이며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풍금이 있던 자리」의 '그 여자'처럼 '나' 또한 사랑하는 유부남을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다. 표면논리에서는 그의 가정을 위하여 떠나는 양보의 의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남성적 강함과 우선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성과의 결별인 것이다. 결국 신경숙 소설의 부성이미지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여성의 과제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극복의 대상이었던 노년의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도전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경숙의 '유부남과의 결별'이라는 소극적 대응이, '주도적인 남성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3) 불임의 사랑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깊은 슬픔」 「베드민턴 치는 여자」 등의 작품은,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채워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인내로 점철되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는 불임의 사랑으로 인한 슬픔이다. "사랑은 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결핍의 운명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라는 짐작만이 가능하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언제나 실현될 수 없는 결핍과 부재의 방향을 욕망한다. 어

쩌면 서로 같은 것은 욕망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소통되지 못하는 관계가 거기에 있다. 그곳에는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존재론적 비극성이 내재되어 있다"[9]고 이미 다른 글에서도 논하였던 이광호는 인간이란 실존 자체의 고독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외로움은 극복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상처를 엮게 된다.

> 지금…… 막, 당신과의 약속시간이 지났습니다. 순간 숯불이 얹혀지는 듯한 뜨거움이 가슴에 치받쳤습니다. 이 치받침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 나의 하루는 이 치받침으로 시작해서 이 치받침으로 끝나곤 했으니 나에겐 오히려 동무같은 감정이에요. 당신을 만날 때의 반가움,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은 수줍음, 당신이 없는 동안의 그리움, 누구에게도 당신을 자랑할 수 없어서 곧잘 얼굴이 발그레해졌던 무안함까지 그 치받침 속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이지만, 방금 것의 치받침은 한 세계를 무너뜨리느라고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가까이 가선 안 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애가 타는지요.[10]

"내가 살아보려 했으나 마음 붙이지 못한 헤어짐들, 슬픔들, 아름다움들, 사라져 버린 것들,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닿지 못할 논리 밖의 세계들, 말해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이미 삶이 찌그러져 버렸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익명의 존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욕망, 도처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나 시간 앞에 무력하기만 하는 사랑, 불가능한 것에 대한 매달림, 여기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 …… 이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을 불러와 유연하게 본질에 닿게 하고 자연의 냄새에 잠기게 하고 싶은 꿈, 그렇게 해서 이 순간에 가둬놓고 싶은 실현 불가능한 꿈"[11](「말해질 수 없는 것들」) 이렇게 현실에서 이뤄내기 힘든 꿈에

9) 이광호, 「맹목의 세대론」, 『환멸의 신화』(민음사, 1995), p.174.
10) 같은 책, p.40.
11) 임규찬, 「마음의 육신이 짓는 문학의 집」, 『임규찬 문학평론집』(창작과비평사,

대하여 작가 신경숙은 노래하고 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낭만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사고는 이성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감성으로 내닫고, 합리성의 잣대에는 도저히 재단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그녀에겐 그녀만의 삶을 푸는 방정식이 있다.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랑 그 자체에 자신을 내던진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미래가 없고, 잉태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행한 결과 앞에 절망하지 않으며, 사랑 그 자체를 오염시키지 않고 푸른 아름다움을 남긴 채 마침표를 찍는다. "불륜의 아름다움을 특유의 감각적 언어로 형상화했던 신경숙"[12]이라고 김태현이 표현했듯이 「풍금이 있던 자리」 「깊은 슬픔」 「베.드민턴 치는 여자」 등의 작품은 금단의 사랑이 소설들의 주제다. 그러나 신경숙은 금기의 사랑을 사랑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추함이나 혐오로부터 빠져 나와 순수한 사랑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 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마리의 수컷 공작새가 아주 어려서부터 코끼리 거북과 철망 담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는 언어가 다르고 몸집과 생김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어느덧 수공작새는 다 자라 짝짓기를 할만큼 되었다.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멋진 날개를 펼쳐 보여야만 하는데 이 공작새는 암컷 앞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엉뚱하게도 코끼리 거북 앞에서는 그 우아한 날개짓을 했다. 이 수공작새는 한평생 코끼리 거북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다.

위의 인용문은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의 첫 부분이다. 그러나 신경숙의 글이 아니고 박치룡의 「동물의 행동」 일부이다. 이는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꿈꾸는 평행선을 의미한다. 본문 서두에 이 글을 실음으로써 「풍금이 있던 자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이상화한, 현실의

1997), pp.116~117.

12) 김태현, 「사랑의 파문」, 『김태현 평론집』(실천문학사, 1996), p.53.

불가능과 상처를 미학적으로 처리하여 낭만적인 작품이 된다. 즉 불임은 아무 것도 생산할 수 없는 부정적 이미지이나, 신경숙의 작품들에서는 오히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기에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게 여운을 남기게 되어 정신적 공백에서 오는 청량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불륜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시각보다 사랑이란 근원적 동기로 신경숙의 작품들이 다가옴은, 신경숙의 사랑학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외딴방」의 부재론

"신경숙이 「깊은 슬픔」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자, 야간학교 시절의 친구가 어느 날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시절의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느냐고 작가에게 질문하였다. 이 돌연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것이 이 작품이다."[13] "이 글은 사실도 픽션도 아닌 그 중간쯤의 글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하지만 그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글쓰기를 생각해본다. 내게 글쓰기란 무엇인가? 하고."[14] 이러한 신경숙의 고백과 같이 작품 「외딴방」은 주인공 '내'가 유신 말기 구로 공단에서 일하면서 <산업체 특별학급>에 다녔던 삼 년여 동안의 경험에 의해 쓰여진 글이다.

> 공터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 오빠는 방위 제대를 했고 방위 제대를 했고 방위 제대하기 한 달 전 과외금지로 학원은 폐원이 되었다. 우리는 그 방 그 다락방에 가발을 그냥 걸어놓고 이사를 했다. …… 이후 오랫동안 다락방 천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 그 남자의 공포와 슬픔이 엇갈린 절망을 기억했다가 …… 잊었다. 아이를 떼라 했지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직은…… 그러나 남자의 그 말이 그녀를, 너무나 그리워 지금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희재언니를, 구더기밥이 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

13) 김태현, 「사랑의 파문」, 『김태현 평론집』(실천문학사, 1996), p.122.
14) 신경숙, 『외딴방』 1권(문학동네, 1995), p.9.

녀의 희미한 웃음이…… 한줌이나 될까 한 허리가……유품으로 나온 백 몇십 만원의 저축액이…… 그 남자는 아이를 떼라, 했고……나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어쩌면 그때는 희미하게 울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녀를 안에 두고 그 선반 위 육 개월도 채 못 신은 학생화를 안에 두고……열쇠를 채웠었다."[15]

낮에는 구로 공단에서 미싱 박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에 다니는 공원들의 비참한 가난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나와 가까웠던 희재언니, 미싱에 손등이 박혀 퉁퉁 부어 있을 때에도 예의 떠올리던 희미한 웃음. 이 웃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즉 부재에서 오는 허망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두꺼운 벽에 부딪쳤을 때의 좌절이, 오히려 진한 통곡의 의미보다 더 비애스런 울음으로 대신되어 있다고 본다. 희재언니의 가난은, 나의 가난이고 노동자의 가난이었다. 물질의 없음이 정신의 공허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뱃속의 아이까지 지우라는 희재언니의 남자인 재단사로부터의 권유가 희재언니를 자살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희재언니의 '외딴방'은 고독과 가난과 절망으로 대변된다.

"이 기계와 소음과 속도의 '호로자식들'은 일확천금의 헛꿈에 취해 몸과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거덜내고야 이제 집과 어머니가 그리운 것"[16]이라고 무작정 상경한 공단의 직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그런대로 의식주의 부족감 없이 살았을 그들이, 서울이라 꿈을 쫓아 구로 공단에 들어와선 상대적 빈곤감에 헐떡여야 했고, 노동 속에 시간과 젊음을 바친다 해도 그들이 원하던 풍요는 점점 멀어져만 갔고, 육체와 정신은 황폐해져 갈 뿐이었다. 「외딴방」의 희재언니 역시 그 무리의 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젊은 육체를 쉴 곳은, 겨우 발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세 평 남짓한 공간뿐이었다. 발랄한 정신과 낭만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손등을 미싱으로 박고 희미한 웃

15) 신경숙, 『외딴방』(강물이 될 때까지(신경숙소설집), 문학동네, 1990), p.330.
16) 김사인, 「'외딴방'에 대한 몇 가지 메모」, 『문학동네』(1996년 봄호), p.167.

음 밖에 띄울 수 없다. 정신적 절망감이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막연한 동경을 좇아 서울로 서울로 발길을 향했는가와, 그 기대와 달리 그들에게 펼쳐진 사실적인 현실은 얼마나 처참했었나를, 「외딴방」은 슬프게 토로하고 있다. 황병하는 "내가 만일 자전 소설을 써야하는 입장에 서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나 자신에 대해 자기 성찰적인 폭로를 할 수 있을 것인가?"[17]라고 자전 소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듯, 작가 신경숙 자신이 이 단편이 "확실한 체험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소설"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시기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혐오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연 그녀가 「외딴방」을 통해 얼마만큼 자기고백적 육성을 토로했는지 약간의 의문이 든다는 점이 황병하의 논의와 통하고 있는 바이다. 신경숙은 「외딴방」을 통하여 젊은 시절의 가난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빠져 나오려 허둥거렸으며, 이에 좌절하여 자살한 희재언니의 삶에 대한 연민 또한 담고 있다. 이제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 한 단면과 연결되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신경숙 자신과 희재언니의 젊은 날이 오버랩된다. 1980년대 노동의 현장에서의 비상구가 없는 빈곤, 제도권 밖의 고독이, 아무 것도 붙들 수 없는 부재의 절망을 부추겨 희재언니는 죽음 속으로 이끌었고, 작가 신경숙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흔으로 남아 기억 저편에 팽개쳐 버리고 싶은 과거로 치부된 것이다.

3. 결론

작가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깊은 슬픔」 「베드민턴 치는 여자」 「외딴방」을 통하여 그녀 특유의 부재의식에 관하여 논해 보았다. 신경숙의 부재성은 사랑, 빈곤, 외로움, 절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경숙

17) 황병하, 「메타비평을 위하여」, 『황병하 평론집』(민음사, 1997), p.260.

은 삶의 슬픈 사항들을 오히려 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작가이다. 그녀는 마치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마술사 처럼 그녀 가슴에 와 닿는 불행한 부분들을 맑은 수채화를 그리듯, 마냥 시리도록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신경숙의 사랑은 미완이자 불임의 사랑이다. 소위 '불륜'이라고 하는 윤리적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사랑이기에, 세인에게 부정으로 비춰질 법도 한데, 그녀에게 오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랑보다 오히려 더한 안타까움과 순수함마저 내포하게 된다. 요컨대 탁한 느낌의 관념이 맑게 정화되는 감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부권에 대한 중압감을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의 아버지의 '그 여자'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같은 피해자라는 동료감을 통하여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아버지와 오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묵시적 반발은 평론가들 사이에 신경숙이 페미니즘의 아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부르지만, 그렇게 구별짓기에는 신경숙 작품의 낭만성이 걸림돌이 된다. 그녀는 이데올로기에 구애받거나, 남성에 대한 연민을 보임으로써 강하게 대적하기보다는, 모성적으로 포용을 시도한다.

1980년대 열악한 공단을 배경으로 한 「외딴방」은, 서울상경에의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등진 젊은이들이 서울의 외곽지대에서 겪는 절대빈곤과 고독, 노동현장에서 젊음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가버린 희재언니와 같은 희생된 젊음에 대하여, 그들이 향유하지 못한 사랑의 부재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빈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1993, p.38.

_____, 『외딴방』 1권(전 2권), 문학동네, 1995, p.9.

_____, 『외딴방』 강물이 될 때까지(신경숙 소설집), 문학동네, 1990, p.330.

김사인, 「'외딴방'에 대한 몇 가지 메모」, 『문학동네』, 1996년 봄호, p.167.

김태현, 「사랑의 파문」, 『김태현 평론집』, 실천문학사, 1996, p.53.

박혜경, 「추억, 그 바스러지는 무늬의 삶-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박혜경 비평집』, 1997, p.38.
_____, 「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5호, 1995년 여름, p.355.
양선규, 「사실 혹은 사족의 미학」, 『한국현대소설의 무의식』, 국학자료원, 1998, p.363.
이광호, 「그녀를 들여다보는 그녀」,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p.174.
_____, 「맹목의 세대론」,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p.174.
임규찬, 「마음의 육신이 짓는 문학의 집」, 『임규찬 문학평론집』, 창작과비평사, 1997, pp.116~117.
황병하, 「메타비평을 위하여」, 『황병하 평론집』, 민음사, 1997, p.260.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 1989.